

너의 끼와 꿈을 펼쳐라

인천용마초, 학생들 재능 선보이는 자리 가져



인천용마초등학교(교장 허영애)는 11월 17일 오전 8시 50분부터 14시 30분까지 한울아미당에서 (신관2층 강당)에서 음악 '끼와 꿈' 펼칠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달이라는 제목 아래 음악 어린이들의 감고 닦은 재량을 펼쳐 보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재능과 흥미를 끌어내 이들을 학부모와 친구들 앞에서 펼쳐 보임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찾고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며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재능과 기량을 확인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됐다.

오전 개회식을 필두로 1부에는 2학년과 5학년 학생,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의 공연으로 이뤄졌으며 2부는 유치원, 1학년, 4학년,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의 공연, 3부는 3학년과 6학년,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진행돼 행사가 더욱 더 풍요해졌다.

각 공연은 플루트, 리듬악기, 우쿨렐레, 통기타 등 다양한 악기 연주, 음악 놀이기, 태권무, 무용, 댄스 등의 윙동공연, 패션쇼, 뮤지컬, 연극 등의 종합예술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이뤄졌다. 공연행사 외에도 중앙연관과 한울아미당 북도 등을 이용해 1년간 감고 닦은 방과 후 학교 부서별 작품이 전시됐고, 휴먼여행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참석한 학부모 모두가 자녀들의 귀여운 재능과 다양한 공연에 즐겁게 관람하고 격려하며 학교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4학년)은 "멀리두고 볼 때도 했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도 하고 친구들과 부모님, 어른들 앞에서 보여드리게 돼 뿌듯하다. 학교 행사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협동심이 배우게 되고 내가 잘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습 기자 as@

교육기부 새로운 장 열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 마무리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김장수 관장)은 11월 28일 찾아가는 교육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올 한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하반기 연수회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북구도서관은 교령화사업의 진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문직 퇴직자 및 예체능 특기자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2년부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학습이 필요한 기관과 학습자를 직접 찾아가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127명의 봉사자가 136개 기관에서 봉사했다.

하반기 연수회 및 평가보고회에서는 올 한해 동안 활발히 활동한 학습동아리 1팀과 4명의 봉사자를 선정 '이름다운 봉사상'을 시상하였으며 봉사단원들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2016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결과발표와, 수도권대외간경에서 실시하는 기부부감 미세먼지교육과 더불어 생활 속 공기의 질 향상을 위해 연계된 전문가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

여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 한해 봉사단원들의 자질 및 전문성 강화와 단원들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기존봉사자 보수교육 및 신규봉사자자 기본교육, 봉사단원의 재교육 '브레인 실버지도 입문' 및 참살이 워크숍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제 1회 인천평생학습 실천대회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하모니카 동아리가 운영사례발표에 참가하여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활동을 알렸다.

인천습 기자 as@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지움'

지움 있다. 지움 있다. 지움 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화학용품!

대한연과 경제발전엔 꼭 필요한 건설염!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국가발전의 기초는 우리 생활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연과의 더 큰 미래를 믿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강국 KOREA를 짓습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다

인천신정중, 자유학기제 진로특강 실시



인천신정중학교(교장 이미영)는 10월 14일, 11월 15일, 11월 18일 3회기에 걸쳐 2시간씩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특강을 실시한다.

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이번 특강은 이창현 강사와 김영광 강사를 초빙해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와 '내일(tomorrow)의 내일(my job) 찾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일상적인 장면이 아닌 일대일 질문 방식으로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올바른

진로 설정을 위한 나만의 꿈을 찾는 방법과 그 전략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학생들이 열정적인 장면이 끝난 뒤에 어떻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창현 강사의 특강에 참여한 인천신정중학교 1학년 장서원 학생은 "이창현 강사님께서는 우리가 강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롭게 강연해 주셨으며 이 강의를 통해서 나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동경의 대상과 학습 속도를 찾고, 내가 만족하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며 만족해했다.

인천신정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다채로운 진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습 기자 as@

서로의 장점 찾으며 신뢰 쌓기

서운중, 사제동행 힐링 프로그램 실시



서운중학교(교장 박만식)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심리-정서역인 사제동행 힐링 프로그램 '가까워! 특!' (연락, 가축, 재방, 원

에 등)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사제동행 힐링 프로그램은 스승과 제자 간 특별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관계개선 및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형성과 학교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사제 9명이 참여했다.

스승과 제자가 2인 1조로, 평소 경직돼 있던 몸과 마음을 풀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가면서 신뢰관계 구축하는 활동을 통해, 사제 간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제동행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는 "평소 학교에서는 한 학생과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은 "선생님과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 조절할 수 있게 돼 좋았다"며 첫날 소감을 말했다.

서운중 가운누리 교육복지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사제 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습 기자 as@

꿈쟁이, 끼쟁이들의 즐거운 시간

인천남동초, 학예발표회 개최

'남동의 꿈쟁이들, 끼쟁이들 모두가 기뻐요!'

높고 푸른 하늘과 소담스럽게 피어난 국화가 마음까지 물들이는 가을!

인천남동초등학교(교장 김성곤)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남동 꿈누리관에서 남동초교 학생들이 그동안 감고 닦아 온 끼를 발산시키기 위한 남동 학예 발표회를 개최했다.

남동초의 학예 발표회는 전시마당과 공연마당으로 구성돼 진행됐는데, 전시마당에서는 1-6학년 학생들이 그동안 감고 닦은 학습 결과물과 교내의 다양한 캠페인 활동, 학부모 평생교육 수업의 결과물 등이 전시됐다. 또한, 공연마당에서는 방과 후 활동의 발표와 각 학년의 특색 있는 합주, 무용, 지어리딩, 카드 섹션 등의 다양한 종합예술로 구성돼,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학생들의 열띤 퍼포먼스와 열거로 관객의 환한 박수를 받으며 진행됐다.

남동 학예 발표회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전인교육의 하나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열심히 가져온 꿈과 끼를 마음껏 빛나게 하고, 배우는

아동의 꿈과 가르치는 교사의 보람,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감응이 서로 어우러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남동 학예 발표회를 통해 남동초등학교 학생들은 평소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심화시키고, 풍부한 정서를 길러 더욱 넓은 교양을 쌓았으며, 꿈을 갖고 그 꿈을 키워나갈 미래의 나를 가꾸고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급 간 우애와 협동심이 향상됐으며, 발표 무대를 통해 평소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표함으로써 자신감 향상과 미래 진로에 대한 자기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됐다.

인천습 기자 as@

인천가림초, 학교로 찾아가는 피에로 마임공연



인천가림초등학교(교장 김연걸)에서는 11월 18일 '학교로 찾아가는 피에로 마임공연'을 개최했다.

송으로 마임 공연을 감상했다.

학생들은 평소 접하지 못한 피에로와 익살스러운 표정과 모습, 마임으로 표현되는 몸짓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색다른 문화공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색다른 체험과 즐거운 문화 활동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도움이 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수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또한 학부모에게는 학교 내에서의 재미있는 문화공연으로 즐거움과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김연걸 교장은 "가림초는 앞으로 이러한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 공연의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인천습 기자 as@